

buddhanews.com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바로 부처님 법이예요

25면에서 계속

이 심부름을 해 드리려니까 들어 달라면 들어 드려야 하고, 해 달라면 해 줘야 하고, 같이 걸어 달라면 걸어 줘야 하나요. 이것은 나라를 게 없습시다.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를 게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모두 사랑들을 해도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줬는데 조커는 안 그래!' 하고 말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여러분도 지금 자식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들 계시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까? 조건을 붙이고 줍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이 주지 않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지면 그냥, 자기가 죽든 말든 그냥 떠둬둬둬 풀어둬둬둬. '물에서 건져 주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없죠. 바로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자비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 자비와 틀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우리 부모의 조상이나 부처님들의 조상을 돌로 보지 마세요. 살아나가는 데 엇갈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엇갈립니다. 이거는 부처님 조상 믿으라, 육신을 낳아 주신 부모 조상들 위하라.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한마음으로 한다면 조상들도 아주 잠깐 잠깐 잠깐 한마음 안에 한자리 하게끔, 즉 말하자면 해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제사를 지낼 때도 잠잠하다 동그런 떡 세 켜든지 한 켜든지 놓고 향, 물, 촛불, 이렇게만 해 놓으시고 합장 배례를 하시고 '한마음 주인공이시여! 모든 조상들의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과 모두가, 한마음 한자리 한도량에 모두가 운집을 하셨는데 뭐 따로따로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해 놓으면 그뿐이지 뭐가 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천문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천문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동그런 떡이 말이에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세계'란 말입니다. 위는 위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즉 대천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를 다 먹이고도 되잖아요. 하하하... 그 떡이 되잖아요. 아시겠소? 이것이 거짓인 줄 알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참 교묘하고 아주 조금도 빈틈없는 우리 삶의 보람이로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한자리가 되는 거죠. 상에다가 조금조금 차려 놓고선 '요거 접수시오'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 삼천대천세계 모두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주고, 자기 먹을 걸로 만들어 주고, 자기

살 곳으로 만들어 준다던 '가는 쪽쪽 내 자리고, 가는 쪽쪽 내 먹을 것이고, 내 거 아님이 없으니 아님이 없으니 먹고 먹고 또 먹어도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하는데 끝간 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올라갈 거지 그저 상에다가 조금 차려 놓고 그저 요거 요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미신이 됐기 때문에 미신을 외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사람'이라는 두 글자로 불리고 있다면 진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도리를 몰라서는 안 되죠. 알아야 위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면서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전자에서부터 살면서 해 내려오던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무엇을 봐야 된다, 혼인을 해도 무슨 궁합을 봐야 된다 하는데 궁합들을 그렇게 잘 봐서 모두들 잘사십니까? 네? (대중 웃음) 그리고 이사 가는 날짜를 잘 봐서, 그렇게 손을 잘 봐서 애고도 없고 병고도 없이 다들 잘사십니까? 내가 꼭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날, 식구들이 모두 노는 날, 내가 가고 싶은 그 날이 그냥 이사 가는 날이예요. 두 남자가 봐서 '나하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대도 궁합이 좋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데리고 살 것이 아니니 그냥 결혼시키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그냥 엉겨주춤 하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노예죠. 뭐, 귀신 노예 사람 노예, 허허허... 모두 노예가 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는 대로 노예가 되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대로 노예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에 밥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돈 갖다 놓는 거 보고서 스님 되려는 사람은 천지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이러한 기복과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없는 나날을 지내오며 관습이 아주 조잡이 조잡이 붙어서, 기복이 조잡이 조잡이 붙어서 여러분이 그냥 요기조기 갖다가 놓고 '질성님, 명 길게 해 주시오, 독성님, 우환 없게 해 주시오, 지장님, 나쁜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시오, 부처님, 잘살게 해 주시오, 또는 관세음보살, 잘되게 해 주시오.' 이거기 때문입니다. 관세음이라는 것이 무슨 줄 아십니까? 아미예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동방에는 아축불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세상 사

바세계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름도 가졌죠, 할아버지 이름도 가졌죠, 남편 이름도 가졌죠, 형님 이름도 가졌죠, 사위 이름도 가졌죠. 아휴! 이름도 너무 많잖아요. 그 이름대로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선 그냥 자동적으로 남편 노릇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뭐 결립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어, 너 왔니?" 하면서 자동적으로 남편이라는 건 없어지고 아버지가 금방 됐어요. 그렇게 나투어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도 자동적으로 중생들이 '아유, 병고에 이렇게 휘달

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또는 자식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또는 형님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공했다 이 소립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모두가 틀이 아니게 나투면서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으니 그중 알라."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나투며 돌아가는 분의 이름은 많지만 그 나투며 돌아가는 분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관세음보살로 해 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돌아가는 이 자체를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입니다. 이 세상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먼저 발견을 해야 잘나잘나 나투는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깨달음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했던 말이예요.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답 너머로 호박 넣음이 넘어 가서 호박 열리는 까닭입니다." 했습니다. "호박은 여여한가?" 하니 "호박은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하더군요.

이 도리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두 깨달으십시오. 말씀해 놓은 것이 모두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 또 길을 따라서 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니 뭐니 뭐니 전부 이름을 지어 놔지,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예요! 여러분이 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은 많지만 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바로 부처님 법이예요. 여러분이 부처고요.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 어떤 걸로 갈라놓고 중생이다 부처다 하겠습니까. 예전에 독립군이 총을 맞고 산에서 쓰러지니까 까마귀가 떼를 지어 "까유까유" 하고 와서 눈알도 빼 먹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까마귀들아, 나를 보고 비웃지 마라. 비록 이 모습은 쓰러지나 나를 파먹지는 못하며 나를 죽일 수는 없느니라." 했듯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죽는다 산다도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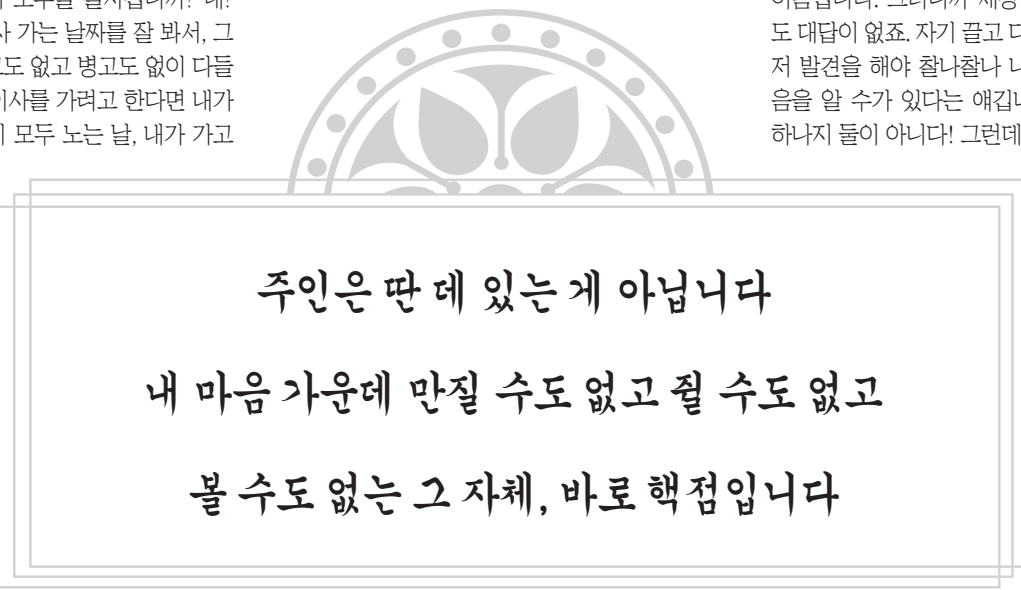
기를 발견해서 사시려면 생활 속에서 꼭 '내 이 겁테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하는 거다. 모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인이다.' 하고 사시란 말입니다. 관리인밖에 더 됩니까? 진짜 자기 겁니까? 관리인이죠.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자기 겁 아닙니다. 자기 거라고 한다면 슬금슬금 다 나가서 금방 곳간이 빌 겁니다. '흥, 나를 꼭 붙들어 놓으려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니까요. 돈도 생명이 있고 돈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구에 계신 여러분이 좀더 밝게 지혜를 가지고 내 한마음을 믿고 발견해서 애고도 벗어나시고 병고도 벗어나시고 또 내 가정도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사회도 나라도 이끌어 가세요. 남북통일도 그렇고 마음으로 규정지어서 한생각 낸다면 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걸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모습이 없는 마음은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날 수 있고 달세계도 한 날에 끝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아시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지 그걸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잘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과 모습, 그 마음이 내 마음 아님이 없고 내 고통 아님이 없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울러나도 읊니다. 우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변소나 어디 가서 그거를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깨치면 모든 걸 벗어 버리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난 깨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나는 아파서 우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게 되고, 즐거워서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즐거워서 웃게 되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도 없고 편안치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그 속에서 그냥 구르고 있는 자체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다르다고 생각 마시고 높다고 생각도 마시고 '저분은 깨달은 분이 다.' 이렇게도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이날까지 높은 게 되려고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절대로 한테로 믿지 마십시오!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도 믿지 마시고, 그거 이끌어 주면 이끌어 주는 대로 세 가지가 똑바른가 보시고 이 공을 받으십시오. 말과 행과 뜻이 같으면 따라서 좋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은...

*위 법문은 1992년 5월 24일 대구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니 이 병 좀 고쳐 주세요, 부처님!' 이런면 약사가 돼서 응신으로 나투어 주십시오. 또 '아이고, 살림살이가 늘지 않고 만발 망하기만 하고 죽겠으니 어떡합니까?' 하면 그냥 관세음으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가정에서 살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투면서 이 노릇 저 노릇 다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이 그렇게 나투시면서 사시는 거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마음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마음이 죄 각각이나?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막론해 놓고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없는 게 부처입니다. 없는 게 공해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 불바위가 그냥 부처예요, 이를 해서, 그래서 부처란 말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들 노릇 할 때에 내

한국불교여래종 입종 안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 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 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까.

- 다수,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발로 해 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오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송보송 100%보장!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www.법당상사.kr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연락처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